

한마음한몸

2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1988년 故김수환 추기경님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 운동과 생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재단입니다.

vol. 273 | 2026

2026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순캠페인

손 내밀어 봄, 마음 열어 봄

삶의 위기에 놓인 우리 이웃을 지켜주세요.

봄은 새로움이 시작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마음의 위기가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3~5월)에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철 정서적 위험 신호에 주목하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사순시기를 맞아 「손 내밀어 봄, 마음 열어 봄」(이하 '봄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순시기, 희생과 절제로 이웃을 위한 나눔에 함께해 주시고, 삶의 위기에 놓인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여는 작은 실천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봄봄" 캠페인 실천하기

1. 괜찮아? 라고 물어보기

마음이 힘든 이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괜찮아?"라고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은 자살예방의 첫걸음입니다.

2. 자살예방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위기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3만원 이상 정기후원하시면, '봄봄 목주키링'을 보내드립니다."

2026 "봄봄" 캠페인 후원하기

모금기간 2026.2.12.(목)~2026.4.12.(일)

정기후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ohob.or.kr)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합니다.

일시후원 우리은행 1005-380-307979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문의 전화 02-774-3488 | **문자** 1666-1056 | **이메일** donation@ohob.or.kr

※ 해당 캠페인을 위해 모금기간 동안 정기후원(3만 원 이상)을 신청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봄봄 목주키링'을 보내드립니다.

※ 목주키링은 캠페인 모금기간 내 첫 후원금 납입일 이후 1달 이내에 후원 신청 시 입력해 주신 주소로 발송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 후 연락해 주세요.



캠페인 참여하고
'봄봄 목주키링' 받기

2026년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유가족 돌봄 프로그램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자살유가족을 위한 돌봄과 치유활동

월레미사, 유가족모임, 피정 등
(2025년 약 1,500명의 유가족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위로를 전하는 마음돌봄 캠페인

묵주기도 캠페인, 찾아가는 마음돌봄 프로그램 등
(2025년 약 4,500명의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가톨릭 자살예방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자살예방교육, ASIST 교육 등
(2025년 약 1,000명의 학생, 사제, 수도자,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가톨릭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다시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2026년 슬픔 속 희망 찾기 유가족 모임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유가족을 위한 월레미사

일시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가톨릭회관 소성당

유가족 모임

활동내용 사별 대상 별 자조모임(부모/자녀/형제자매) 또는 활동별 모임(걷기/독서/글쓰기 등)
모임일정 2026년 3월 ~ 11월 (활동 별 월 1회)
장 소 가톨릭회관 소회의실 외
모집기간 2026년 2월 21일(토)까지
신청방법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3079.or.kr) 및 전화(02-318-3079)

"아들을 자살로 떠나보낸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을 늘 혼자 견뎌 왔습니다."

"유가족 모임에 오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고통은 조금씩 덜어졌고 온몸에 박혀 있던 가시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살로 떠나보낸 김*연님의 사연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떠나보낸 후의 슬픔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같은 아픔을 경험한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와 나눔을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콩구시에는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전해온 키시토 몬시놀님의 메시지와 변화의 이야기



키시토(Kisito) 몬시놀
부르키나파소 와이구야교구
APBY 자문위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부르키나파소 와이구야
(Ouahigouya) 교구의 APBY 자문위원 키시토(Kisito)
몬시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르키나파소의 어려운
현실과 그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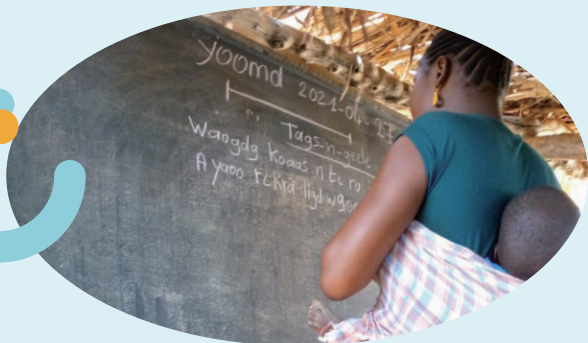
부르키나파소는 무장 테러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와 행정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실항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콩구시(Kongoussi) 지역은 테러를
피해 온 실항민들이 집중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 속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키나파소에 가장 절실한 것은 단순한
치안 회복을 넘어, 사회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교육과 직업 훈련, 의료와 생계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콩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훈련 시설과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콩구시에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기술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한국의 형제자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콩구시의
아이들과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꿈을 짓는 배움터'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당에서 문해교육을 받는 부르키나파소 콩구시 마을 여성들의 모습

‘꿈을 짓는 배움터’ 캠페인 후원하기

모금기간 2025.12.1.(월)~2026.2.28.(토)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4-78435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후원문의 전화 02-774-3488 / 문자 1666-1056 / 이메일 donation@ohob.or.kr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ohob.or.kr> 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후원하기

